나의 일상과 마음이 '시'가 되는 시간

사진시 창작교실

<사진을 쓰고, 시를 찍다>

나의 소소한 일상과 마음이 담긴 스마트폰 사진이
'시'가 됩니다

시는 멀리 있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부터 느꼈던 '마음'을
푸딩을 떠놓듯 그대로 폭-
떠다놓으면 그 뿐입니다
평소에 내가 쓰는 말, 그대로요.
은유가 없어도 상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모습 그대로면 됩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 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시인입니다

정말입니다^^

강사 소개

미후지

정육점에 다니고 시를 씁니다

미후지는 껍데기를 안 벗긴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줄임말입니다
돼지고기 중 가장 싸
싸구려 취급을 받지만
불고기, 제육, 카레, 짜장, 탕수육, 만두속까지-
우리가 살며 알게 모르게
가장 많이 먹은 고기랍니다.

계속 미후지 같은 시를 쓰고 싶습니다.
꽃등심 같은 멋진 시는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요

강의 계획서

강좌명 : 사진시 창작교실 <사진을 쓰고 시를 찍다> **강사명 : 미후지 김경은**

강좌소개	사진시 창작교실 〈사진을 쓰고 시를 찍다〉는 일 하느라, 아이를 돌보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통장과 카드명세서를 바라보느라 정신 없이 살던 '나'의 안에 어느새 시의 씨앗이 심어져 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일상을 사진과 시라는 새로운 방식의 문학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시쓰기가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나 자신의 유일무이함과 행복을 찾아가는 일임을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자 이제 내 안에 자라고 시의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을 틔워 볼까요?
수업목표	자신의 일상, 마음이 시가 되는 경험을 통해 나와 내 삶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고 시란 어렵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음을 알고 창작욕을 북돋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가 접목된 문학을 경험하여 문학 창작과 소비의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강의대상	성인 대상
강의시간	1개반 2시간 (○) / 2개반 각 1시간 ( )
교재/재료	필기도구
필요장비	빔프로젝터, PC ,스피커

강 의 계 획

주별	강의단원	세부내용	비고 (재료)
1주	사진시란 무엇일까?	기존의 활자로만 이루어진 시와 달리 사진과 시가 결합된 장르인 사진시에 대해 알아보고 예술이란 '나를 표현' 하는 일임을 알자. ***공통된 사진으로 사진시 창작해보기**	
2주	시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출력' 하는 사람. 문학 창작이 공부와 입력을 우선이라는 부담감을 버리고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해보자. ***공통된 사진으로 창작한 사진시를 함께 보며 각각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 다름을 느끼기**	

3주	좋은 시란 무엇일까?	시란 어렵고 상징과 비유로만 이루어진 장르가 아니다. 우리가 쓰는 일상적 표현으로 충분히 나를 표현할 수 있다.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일상의 사진으로 사진시 창작해보기**	
4주	내 시가 향해야 할 곳은 남인가 나인가?	시 쓰기를 어렵고 무서운 이유는 그것을 읽고 평가하는 '남' 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 남에서 'ㅁ' 을 떼버리고 '나' 를 행복하게 하는 시를 쓰자 ***창작한 사진시를 함께 보며 나와 다른 문우들의 일상과 마음을 함께 나누기**	
5주	시의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시의 소재를 멀리서 찾으면 뻔한 시가 나오거나 시를 쓰기가 어렵다. 눈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보자.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소재인 '나' 가있다.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일상의 사진으로 사진시 창작해보기**	
6주	시의 언어는 따로 있는 것일까?	시의 특별한 엣지는 바로 '나다움' 에서 나온다. 가장 나다운 말투와 나만의 일상언어로 나만 쓸 수 있는 시를 써보자 ***창작한 사진시를 함께 보며 나와 다른 문우들의 일상과 마음을 함께 나누기**	
7주	시가 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란 대단한 의미와 내용을 전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사소한 감정이 바로 시다. ***나처럼 여겨지는 존재를 사진으로 찍고 시로 쓰기**	
8주	형식이 먼저인가 마음이 먼저인가	형식과 작법에 주눅들어서는 한글자도 쓸 수 없다. 모든 형식은 마음으로부터 비롯 태생된 것. 시라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것이 바로 시가 되는 것이다. ***창작한 사진시를 함께 보고 예술의 지향점이 '나 자신' 임을 깨닫기**	
9주	시의 제목은 언제 짓는가?	아이를 키우다 이름을 짓지 않듯이 시도 제목이 먼저다. 제목에는 시의 내용이 아니라 시를 향한 작가의 축복과 감성이 묻어나야한다. ***일상에서 고마운 존재를 사진으로 찍고 상장 형식의 글을 써보기**	
10주	알고 보면 나는 늘 시를 지니고 살고 있다	스마트폰 사진첩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나라는 사람의 관심사를 알게 된다. 이미 사진을 찍는 순간 시는 탄생하고 있었다. 쓰지 않았을 뿐. ***창작한 상장형식의 글을 함께 보고 글의 장르와 형식은 나의 표현 도구임을 깨닫기**	
11주	시의 원료인 '화두' 란 무엇인가?	시를 쓰기 위해 소재를 찾지만 그 소재에 나의 '화두' 가 흐르지 않으면 시로 써내려 갈 수 없다. 나의 '화두' 를 알아보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소재로 사진시 창작해보기**	
12주	시인이 가져야할 최고의 덕목은?	시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올바름, 정확함, 상상력이 아니다. 시를 쓰는 나, 삶을 살아가는 나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이다. ***창작한 사진시를 함께 보며 시인으로 거듭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